



"푸둥지도 안 난 것이 날려고 한다"

뜻: 아직 깃털도 다 나지 않은 아기 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, 자기 능력으로 작은 일도 못 하면서 크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나서는 것을 말해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역량 · 순서 · 허세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푸	둥	지	도	↓	안	↓	난	↓	것	이
날	려	고	↓	한	다	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푸	둥	지	도	↓	안	↓	난	↓	것	이
날	려	고	↓	한	다	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	↓				↓		
				↓		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푸 둥 지 도] [안] [난] [것 이] [날 려 고] [한 다]

웹에서 보기

